

2003년 4월 1일 Digital Contents 사업을 리드하는 주식회사 ENIX와 주식회사 Square가 합병,주식회사‘Square • ENIX’가 되었습니다.‘Square • ENIX’의 본사는 일본 도쿄에 있으며 일본, 북미, 유럽은 물론 아시아에 이르기까지 4500만장 이상의 [final fantasy]시리즈와 3000만장 이상의 ‘드래곤 퀘스트’를 출하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위의 2가지를 기본으로 디지털 컨텐츠의 개발,판매,유통을 하고 있습니다.‘Square • ENIX’사업 분야는 팩키지 사업, 온라인 사업, 모바일, 출판 기타 사업의 5가지로 분류됩니다.

팩키지 사업은 콘솔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스탠드어롱’ 게임을 말하며 온라인 사업은 주로 온라인 게임을 말합니다. 모바일 사업이란 휴대전화에 컨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출판사업은 잡지,만화,게임관련 서적의 출판,판권 ,판매를 의미하며 그 외에는 캐릭터 상품 등 2차 저작물의 판매, 컴퓨터 게임 기술을 육성하는 학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Square • ENIX’의 4가지 경영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Franchise 유지에 주력
2. 해외로의 사업 전개
3. 새로운 Entertainment에 도전
4. On line 사업/ Mobile 사업 확대

지난 9월 26-28일까지 열린 [도쿄 게임쇼 2003] 에서 이 사업분야에 관한 새로운 게임이 다양하게 발표되었습니다. 위에 언급한 내용(4가지 전략)에 관계된 부분을 일부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Franchise사업의 중요성에 있어서는 전세계에 330만장의 판매량을 자랑하는 RPG인 [킹덤 하트]의 속편인 [킹덤 하트 체인 메모리스] [킹덤 하트 2]를 발표했습니다. final fantasy 시리즈에 관해서는 시리즈 초기영상 컨텐츠로 [final fantasyVII]스토리에 이어 [final fantasy children]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발표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해외로의 사업전개는 북미에서 10월부터 MIMORPG [final fantasyXI(PC版)]의 본격적인 서비스 개시 외에 12월에는 [final fantasyX-2]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향후 [드랙 온 드래곤][스타오션 Till the end of time] 등 일본에서 히트친 게임 타이틀을 해외에서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엔터테인먼트에 도전하는 것에는 [神 드래곤 퀘스트, 되살아난 전설의 검]은 실제로 칼을 손에 쥐고 TV를 보며 칼을 휘두르며 몬스터를 쓰러뜨리는 쾌감을 맛볼 수 있는 RPG입니다. [final fantasyVII 어드벤처 칠드런]은 final fantasyVII의 스토리에 이어 final fantasy시리즈의 초기영상 콘텐츠 입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모바일 사업의 확대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play on line입니다. play on line은 3개의[멀티]를 실현하는 서비스 입니다.

첫번째는 [멀티플랫폼]으로 PS2와 PC의 울타리에서 벗어나 다른 단말기에서 동일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시스템 입니다. 두번째는 [멀티 컨트리]로 10월의[final fantasyXI]가 북미에서 전개된 것을 계기로 일본과 북미간의 유저사이에 동일한 세계를 공유함으로써 국경을 초월한 세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번째는 [멀티콘텐츠]입니다. [도쿄 게임쇼 2003]에서 [언브로시아 오딧세이]와 [프론트 미션 온라인(가칭)]이란 2개의 커다란 타이틀을 도입하기로 발표했습니다.

play on line에는 복수 콘텐츠 간의 유저 커뮤니케이션을 써포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 콘텐츠 사이에 커뮤니티의 확충 뿐만 아니라 복수의 콘텐츠, 나아가서는 play on line으로서의 커뮤니티가 확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온라인 게임에서는 없는 특징 입니다.

둘째는 PC온라인 게임의 확충입니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크로스 게이트]는 전세계에 1140만명의 회원이 있으며 점점 그 수는 늘어날 것입니다. 또한 [도쿄 게임 쇼 2003]에서는 3D로봇 액션 + MMORPG[JUNK METAL]이란 신작을 발표,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PC온라인 게임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개척해 가야 한다는 마음으로 컨텐츠 개발에 힘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모바일 사업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도쿄 게임 쇼 2003] 에 앞서 9월 25일 Square • ENIX는 Ntt Docomo가 제공하는 차기 FOMA에 [드래곤 퀘스트]와 [화이널 판타지]의 제 1편을 똑같이 제공하기 위해 현재 개발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휴대폰 게임이 여기까지 올 수 있다!] 는 충격을 주었고 상당히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Square • ENIX 로서는 이번 [드래곤 퀘스트]와 [final fantasy]와 같은 컨텐츠 공급은 물론이고, 휴대전화가 네트워크에 연결된 단말기라 할 수 있는 휴대전화의 특성을 살린 컨텐츠 제공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며 play on line을 휴대전화에도 접목시킬 예정입니다.

Square • ENIX 는 향후에도 보다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세계 최상의 품질을 자랑하는 엔터테인먼트 컨텐츠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해 나아갈 것입니다.